



# 차이나

CHINA Market Report

## 마켓 리포트


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
전화 : 86-10-6505-2672/3

이메일 : beijingk@kita.net

## 2022년 상반기 중국 경제무역 동향 및 하반기 전망

### 목차

- I. 상반기 중국 거시경제 동향
- II. 상반기 중국 수출입 동향
- III. 하반기 전망

### 요약

- 2022년 상반기 중국 GDP는 2.5% 증가한 56조 2,642억 위안(약 1경 1천조 원)을 기록하였고, 그중 2분기 경제성장률은 0.4%로 2020년 1분기( $\Delta$ 6.9%)이후 가장 낮음
- 상반기 중국 수출액은 14.2%, 수입액은 5.7% 증가했으며, 무역수지는 전년 동기대비 1,338억 달러 증가한 3,854억 달러(약 506조 원) 흑자 기록
- 한국은 중국 수출대상국(지역) 순위에서 7위, 중국 수입대상국(지역) 순위에서 5위를 차지하였고 상반기 수출액과 수입액은 각각 18.3%, 3.3% 증가
- 상반기 중국의 소매판매액은 전년 동기대비 0.7% 감소하였으며, 코로나19 재확산이 반복됨에 따라 3~5월 소비수요가 약화되었으나 6월부터 회복 조짐을 보임
- 중국 및 해외 각 기관은 금년 중국 GDP 성장률이 3.9% ~ 4.9% 사이일 것으로 예측
- 하반기 중국 수출입 증가세는 둔화할 수 있으나 경기부양 정책 효력 강화, RCEP 회원국 간 무역 확대, PPI(생산자물가지수)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중국 대외무역 규모는 여전히 확대 잠재력이 있다고 전망

# 1. 상반기 중국 거시경제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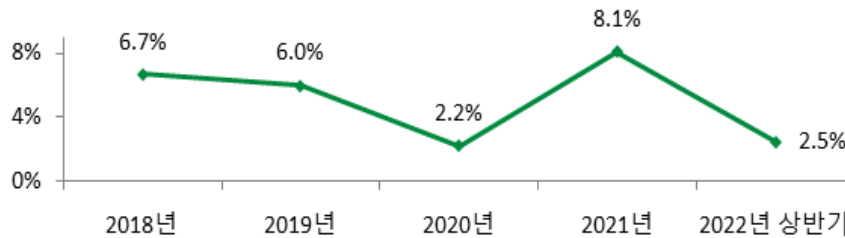
## ① 경제성장률

■ 2022년 상반기 중국 GDP는 2.5% 증가한 56조 2,642억 위안(약 1경 1천조 원)을 기록

- 2022년 2분기 GDP 성장률은 0.4%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였으며, 상반기 주요 대도시 코로나19 방역 통제로 인한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 최초 발생 직후였던 2020년 1분기(△6.9%) 이래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임

\*분기별 GDP 성장률 ('21.Q3) 4.9% → ('21.Q4) 4.0% → ('22.Q1) 4.8% → ('22.Q2) 0.4%

### 최근 중국의 GDP 성장률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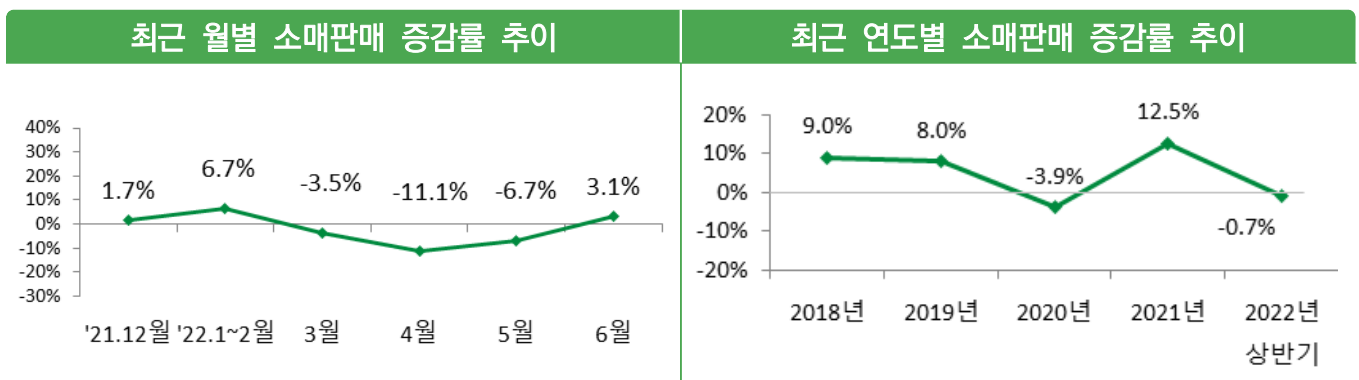
자료 : 중국 국가통계국

## ② 소비와 물가

■ 상반기 중국의 소매판매액은 21조 432억 위안(약 4,118조 원)으로 전년 동기대비 0.7% 감소

-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이 반복됨에 따라 소비 수요가 점차 약화되었으며, 3~5월 소매판매 증감률은 모두 마이너스였으나 6월에 3.1%로 반등
- 코로나로 인한 대면산업분야 소비 침체로 요식업 시장은 7.7% 하락했고 패션 및 의류, 화장품류, 금은보석류는 각각 6.5%, 2.5%, 1.3% 하락. 반면 비대면 온라인 상품 소매판매는 5.6% 증가하였고 의약품류와 석유류는 각각 9.7%, 14.2% 증가

### 최근 중국의 소매판매 증감률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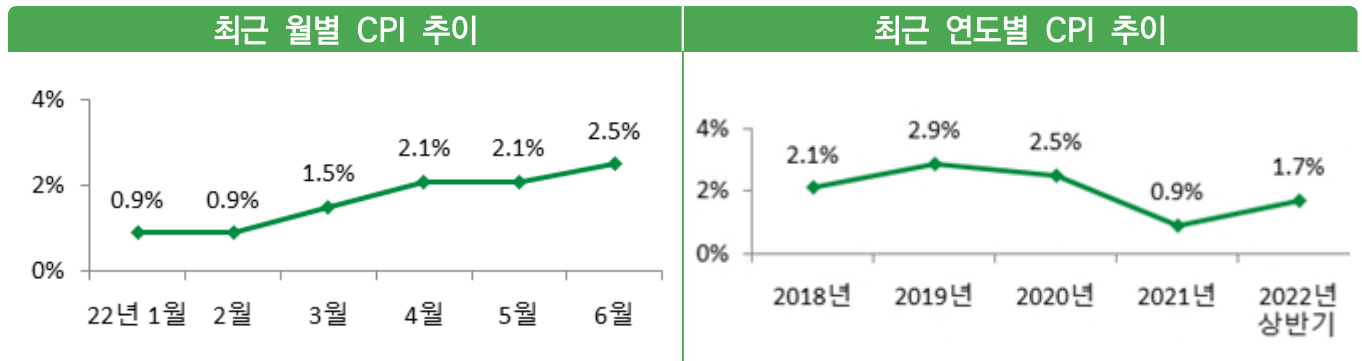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중국 국가통계국

■ 2022년 상반기 중국의 소비자물가지수(CPI)는 변동성 상승세를 보였고 전년 대비 1.7% 상승

- 금년 1월 0.9%에 달했던 CPI는 지속 상승세를 보였으며 6월에는 2.5%를 기록함
- 그중 상반기 중국의 소비재가격은 2.1%, 서비스가격은 1.1% 상승함
- CPI 상승의 주요 요인인 교통·통신 가격은 6.3% 상승하였으며, 상반기 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 등 글로벌 원유가격 폭등의 영향으로 특히 교통수단용 연료 가격이 26.2% 대폭 상승함

최근 중국의 CPI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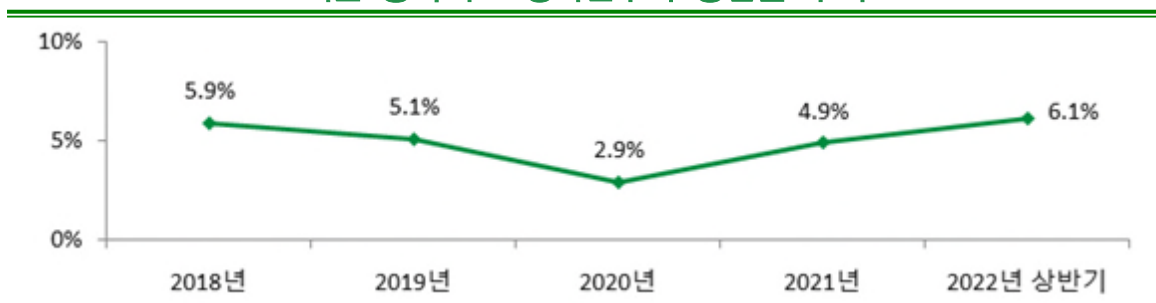
자료 : 중국 국가통계국

3 투자

■ 2022년 상반기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는 6.1% 증가했으며 그중 제조업, 광업 분야의 투자는 각각 10.4%, 9.8% 증가하고 농림·축산·어업 분야는 8.0% 증가

- 제조업 중에서 자동차 제조 관련 투자는 8.9% 증가했으며, 투자가 가장 늘어난 분야는 전문설비 제조업으로서 투자금액이 36.7% 증가. 컴퓨터 및 통신 장비, 금속제품, 의약품 제조 관련 투자는 각각 19.9%, 14.7%, 5.4% 증가
- 투자 주체로 분류하면, 국영기업의 투자가 9.2% 증가했고 민간기업 투자는 3.5%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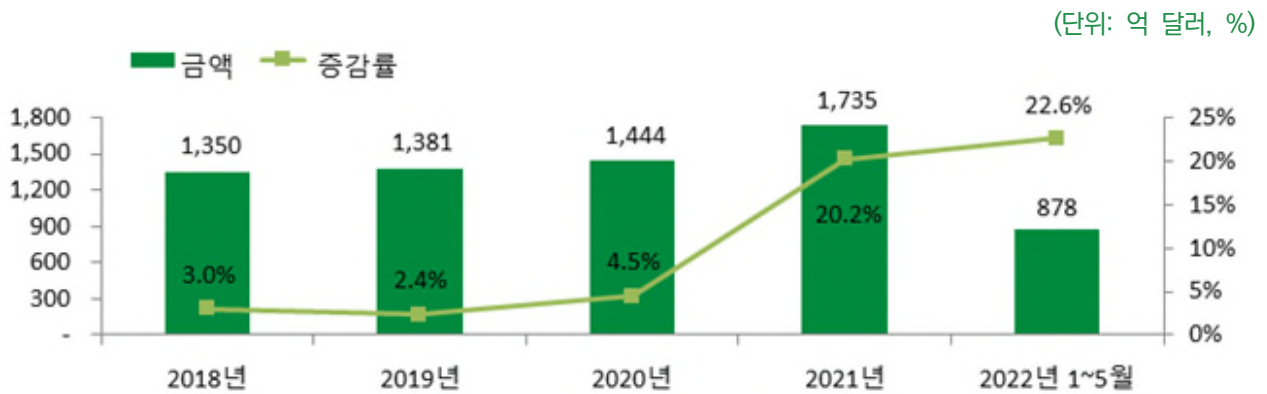
최근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증감률 추이



자료 : 중국 국가통계국

- 2022년 1~5월 對중국 외국인직접투자(FDI)는 전년 동기대비 22.6% 증가한 878억 달러(약 116조 원)를 기록했으며, 특히 하이테크 산업 투자가 42.7% 증가하였고 하반기 투자액도 양호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
- 주요 대중국 투자국가 및 지역으로는 홍콩, 싱가포르, 한국, 일본, 미국, 독일 등이 있으며, 금년 1~5월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52.8%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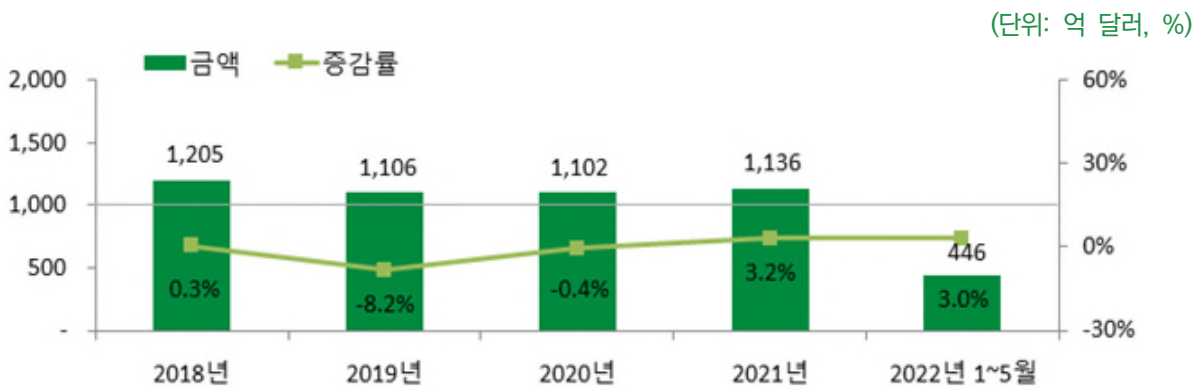
### 최근 연도별 對중국 외국인직접투자 증감률 추이



자료 : 중국 국가통계국

- 2022년 1~5월 중국의 비금융 부문 해외직접투자(ODI)는 전년 동기대비 3.0% 증가한 446억 달러(약 59조 원)를 기록함
- 그중 중국기업의 對일대일로 협력 국가·지역 직접투자액은 전년 동기대비 10.2% 증가한 82억 달러로 전체의 18.4% 비중을 차지함

### 최근 연도별 중국의 비금융 부문 해외직접투자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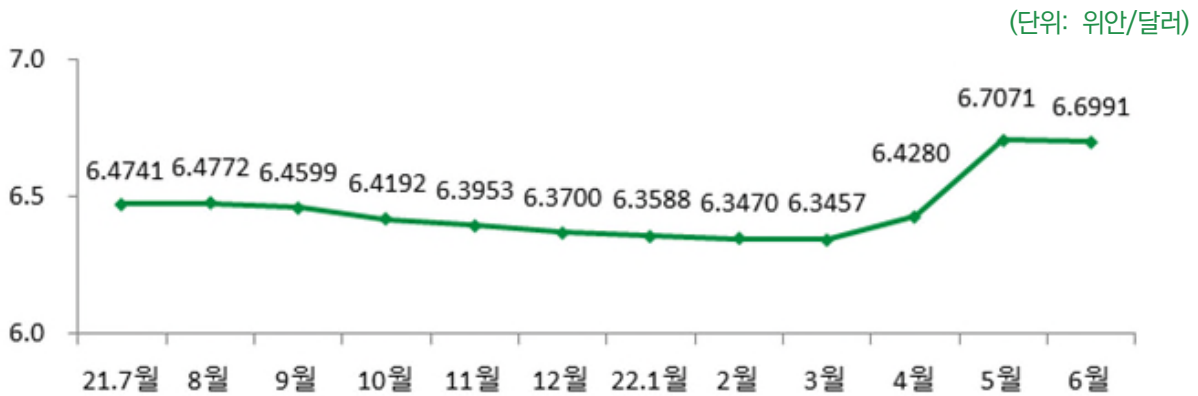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중국 상무부

## 4 환율 및 외환보유액

- 2022년 상반기 평균 위안화 환율은 6.4810위안/달러였고, 작년 7월 평균 6.4741위안/달러에 달했던 위안화 환율은 금년 3월까지 위안화 강세를 이어오다가 5월부터 약세로 전환
- 2020년 12월 이후부터 달러당 6.55위안 이하 수준을 유지해왔으나 최근 중국 경기둔화 우려가 커지면서 6.7위안 수준으로 높아져 위안화 약세 지속

### 2022년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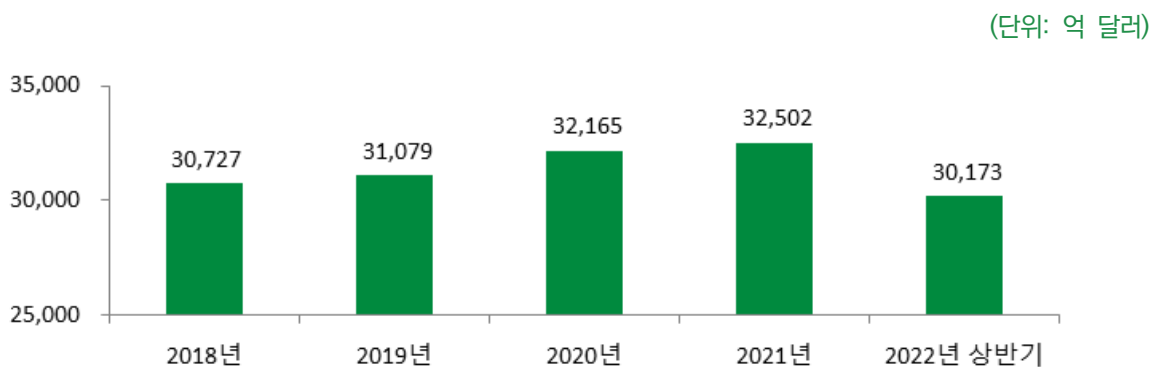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중국 인민은행

- 2022년 6월 말 중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3조 173억 달러(약 3,975조 원)로 2021년 기말 대비 2,329억 달러 감소
-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2010년 이후로 현재까지 3조 달러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금년 1월부터 하락세를 보였고, 중국국가외환관리국은 미 달러화의 강세 등 환율 요인에 의한 영향으로 분석

\*월별 외환보유액(억 달러): ('22.1월) 32,216 → (2월) 32,138 → (3월) 31,880 → (4월) 31,197 → (5월) 31,278

### 최근 중국의 외환보유액 추이



\*주 : 기말 기준

자료 : 중국 인민은행

## 2. 상반기 중국 수출입 동향

### ① 전체 수출입

- 2022년 상반기 중국의 수출은 14.2% 증가한 1조 7,323억 달러(약 2,274조 원), 수입은 5.7% 증가한 1조 3,468억 달러(약 1,768조 원)를 기록
- 무역수지는 전년 동기대비 1,338억 달러 증가한 3,854억 달러(약 506조 원)를 기록

### 최근 중국의 수출입 추이

(단위: 억 달러, %)

| 구 분  |     | 2018   | 2019   | 2020   | 2021   | 2022.상반기 | 2022.6월 |
|------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|
| 수 출  | 금액  | 24,874 | 24,984 | 25,906 | 33,640 | 17,322.8 | 3,312.6 |
|      | 증감률 | 9.9    | 0.5    | 3.6    | 29.9   | 14.2     | 17.9    |
| 수 입  | 금액  | 21,356 | 20,769 | 20,556 | 26,875 | 13,468.4 | 2,333.2 |
|      | 증감률 | 15.8   | △2.8   | △1.1   | 30.1   | 5.7      | 1.0     |
| 무역수지 |     | 3,518  | 4,215  | 5,350  | 6,764  | 3,854.4  | 979.4   |

출처 : 중국 해관총서

### ② 국가(지역)별 수출입

- (수출) 상반기 미국(15.8%), EU(19.1%), ASEAN(16.6%), 중남미(20.1%), 아프리카(14.7%) 등 대부분 주요 교역 지역·국가로의 수출액이 증가했으나 전년 동기대비 증가 폭은 낮음
- 동북아경제권 내 한국(18.3%), 일본(4.4%) 및 동남아의 대표 교역국인 베트남(3.6%)에 대한 수출액은 증가했으나 對홍콩(△8.6%)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
- 한국은 중국 수출대상국(지역) 순위에서 7위를 차지
- (수입) 상반기 ASEAN(5.3%), 중남미(9.8%), 미국(3.6%), 아프리카(19.1%) 지역·국가로부터의 수입액이 증가하였으나 對EU(△7.6%), 對호주(△12.3%)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
- 동북아경제권 내 대만(7.3%), 한국(3.3%)으로부터의 수입액은 한 자릿수 증가율 보였으며 일본(△7.3%)으로부터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
- 한국은 중국 수입대상국(지역) 순위에서 5위를 차지

## 2022년 상반기 중국의 TOP10 수출입 대상국(지역)

(단위: 억 달러, %)

| 순위 | 수 출    |       |      | 수 입    |       |       |
|----|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
|    | 국가별    | 금액    | 증감률  | 국가별    | 금액    | 증감률   |
| 1  | 미국     | 2,927 | 15.8 | *ASEAN | 1,953 | 5.3   |
| 2  | *EU    | 2,772 | 19.1 | *EU    | 1,434 | △7.6  |
| 3  | *ASEAN | 2,632 | 16.6 | 대만     | 1,225 | 7.3   |
| 4  | 홍콩     | 1,431 | △8.6 | *중남미   | 1,162 | 9.8   |
| 5  | *중남미   | 1,205 | 20.1 | 한국     | 1,029 | 3.3   |
| 6  | 일본     | 835   | 4.4  | 일본     | 936   | △7.3  |
| 7  | 한국     | 813   | 18.3 | 미국     | 913   | 3.6   |
| 8  | *아프리카  | 768   | 14.7 | 호주     | 704   | △12.3 |
| 9  | 베트남    | 712   | 3.6  | *아프리카  | 606   | 19.1  |
| 10 | 독일     | 577   | 9.5  | 독일     | 557   | △7.2  |

\*주 : EU 및 ASEAN 등의 실적에는 상기 개별국가들의 실적이 포함

자료 : 중국 해관총서

### 3 품목별 수출입

■ (수출) 상반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(비중 5.0%), 의류 및 부자재(비중 3.3%), 반도체 및 집적회로(비중 3.2%)품목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4.6%, 12.0%, 17.2% 증가

- 반도체 및 집적회로, 휴대폰, 강재, 가전제품 품목의 수출 수량은 전년 동기대비 모두 감소하였으며, 특히 가전제품(비중 1.8%)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7.2% 감소. 해외 국가들의 방역정책이 정상화되면서 야외활동이 증가하여 가전수요가 줄고,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미국·유럽 등 서구지역 소비둔화가 주요 원인

■ (수입) 상반기 반도체 및 집적회로(비중 10.9%), 식량(비중 2.2%), 대두(비중 1.6%) 품목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6.4%, 17.8%, 18.4% 증가

- 특히, 글로벌 유가 상승 영향으로 상반기 원유(비중 9.4%), 천연가스(비중 1.6%)의 수입액이 각각 54.0%, 51.4% 큰 폭으로 증가. 수입 수량은 줄었으나 수입액 증가세가 가파른 데에는 위안화 약세(외환시장 불안정성)가 수입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
- 철광석 및 정광(비중 3.6%), 컴퓨터 및 주변기기(비중 1.6%), 가공 전 초기형태의 플라스틱(비중 1.5%)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30.0%, 1.1%, 1.3% 감소
- 10대 수입 품목 중 구리 광석 및 정광, 미단조 동 및 동재를 제외한 7개 품목의 수입 수량은 전년 동기대비 모두 감소

## 2022년 상반기 중국의 TOP10 수출 품목

(단위: 억 달러, %)

| 순위 | 품 목        | 수량 기준      |       | 금액 기준 |      |     |
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|
|    |            | 수량         | 증감률   | 금액    | 증감률  | 비중  |
| 1  | 컴퓨터 및 주변기기 | -          | -     | 1,197 | 4.6  | 5.0 |
| 2  | 의류 및 부자재   | -          | -     | 802   | 12.0 | 3.3 |
| 3  | 반도체 및 집적회로 | 1,410억 개   | △6.8  | 776   | 17.2 | 3.2 |
| 4  | 방직실 및 직물   | -          | -     | 763   | 11.3 | 3.2 |
| 5  | 휴대폰        | 40,572만 대  | △10.9 | 675   | 4.1  | 2.8 |
| 6  | 플라스틱제품     | -          | -     | 524   | 16.0 | 2.2 |
| 7  | 강재         | 3,346만 톤   | △10.5 | 481   | 30.6 | 2.0 |
| 8  | 가전제품       | 171,198만 대 | △7.7  | 441   | △7.2 | 1.8 |
| 9  | 자동차부품      | -          | -     | 388   | 7.5  | 1.6 |
| 10 | 가구 및 부품    | -          | -     | 352   | 1.2  | 1.5 |

\*주 : 순위는 금액 기준임. 자료 : 중국 해관총서

## 2022년 상반기 중국의 TOP10 수입 품목

(단위: 억 달러, %)

| 순위 | 품 목        | 수량 기준      |       | 금액 기준 |       |      |
|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
|    |            | 수량         | 증감률   | 금액    | 증감률   | 비중   |
| 1  | 반도체 및 집적회로 | 2,797억 개   | △10.4 | 2,102 | 6.4   | 10.9 |
| 2  | 원유         | 25,252만 톤  | △3.1  | 1,810 | 54.0  | 9.4  |
| 3  | 철광석 및 정광   | 53,575만 톤  | △4.4  | 684   | △30.0 | 3.6  |
| 4  | 식량(곡류)     | 7,978만 톤   | △5.4  | 424   | 17.8  | 2.2  |
| 5  | 천연가스       | 5,357만 톤   | △10.0 | 317   | 51.4  | 1.6  |
| 6  | 구리 광석 및 정광 | 1,248만 톤   | 8.6   | 314   | 13.6  | 1.6  |
| 7  | 컴퓨터 및 주변기기 | -          | -     | 303   | △1.1  | 1.6  |
| 8  | 대두         | 4,628만 톤   | △5.4  | 301   | 18.4  | 1.6  |
| 9  | 미단조 동 및 동재 | 2,941,707톤 | 5.3   | 298   | 17.1  | 1.6  |
| 10 | 초기형태의 플라스틱 | 1,506만 톤   | △13.0 | 294   | △1.3  | 1.5  |

\*주 : 순위는 금액 기준임. 자료 : 중국 해관총서







### ④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실적 평가 및 하반기 전망

■ 해외 및 중국 각 기관은 2022년 하반기 중국 수출증가율은 둔화할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주요 원인으로 산발적 코로나19 변이 확산, 높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해외수요 억제, 불안정한 국제정세 영향 등이 있음

- 다만 경기부양 정책 효력 강화, RCEP 회원국 간 무역 확대, PPI(생산자물가지수) 하락세 등의 영향으로 중국 대외무역 규모는 여전히 확대 잠재력이 있다고 전망



## 2022년 상반기 수출입 실적에 대한 기관별 평가 및 하반기 전망

| 구분 | 기관  | 주요 내용  |
|----|---|--|
| 중국 | <br>해관총서<br>(海关总署)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상반기 중국 대외무역은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고, 8분기 연속 수출입 플러스 성장을 달성하며 중국경제 안정에 기여</li> <li>- 특히 상반기 자동차 품목 수출액이 50% 이상 증가하였으며, 중국 브랜드의 전기 자동차 수출이 확대되어 유럽 등 선진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함</li> <li>- 민영기업의 상반기 전자제품이 가파른 수출증가세(15.3%)를 보임</li> <li>- 하반기 경기부양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, 안정적 수출입성장 전망</li> </ul>  |
|    | <br>중신증권<br>(中信证券)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6월, 높은 수출 실적과 수입 둔화로 무역수지는 1,000달러에 근접한 97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였고, 이는 최근 한국과 일본 등 주요 대외무역 국가의 무역수지 적자 전환과 대조적임</li> <li>- 하반기 RCEP가 중국 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두드러질 것이며, 하반기 불확실성은 높으나 중국 대외무역 규모 확대 잠재력이 있다고 전망</li> </ul>  |
|    | <br>자오상 은행<br>(招商银行)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해외 경기침체 추세는 중국 수출 및 제조업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</li> <li>- 코로나19 재확산,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의 영향으로 하반기 수출입 둔화 전망</li> <li>- 하반기 PPI는 하락세로 전환될 수 있으나 CPI는 9월 연중 최고 수준(3%대)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</li> </ul>   |
| 해외 | <br>블룸버그<br>(Bloomberg)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국 6월 무역수지는 약 979억 달러로 지난 30년 이래 월별 무역흑자 최고치를 기록</li> <li>- 6월 수출증가율은 17.9%로 시장 예측치(12.5%)를 상회하였으나 수입증가율은 1.0%로 시장 예측치(4.0%)를 하회함</li> <li>- 상반기 희토류 수출액이 84.5% 증가, 철광석은 수입 감소세 지속</li> <li>- 양호한 6월 수출실적은 상하이항 수송력 회복을 반영하나 하반기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해외수요는 완만하게 감소할 것이며, 수출둔화 전망</li> </ul>  |
|    | <br>로이터<br>(Reuters)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국 6월 수출증가율은 5개월 만에 가장 높았으나 수입증가율은 내수 약화 등 영향으로 전월 대비 둔화</li> <li>- 6월 수입량은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, 특히 원자재 수입량이 감소하였고 이는 중국의 주요 성장 동력인 건설 부문 경기침체 영향 반영</li> <li>- 내수부진은 향후 중국 수입 감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</li> </ul>   |
|    | <br>파이낸셜타임즈<br>(Financial Times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국 2분기 경제는 30년만에 두 번째 최저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으며 중국 무역의 20% 비율을 차지하는 도시인 상하이가 상반기 중 2개월간 폐쇄되는 바람에 애플, 에스티로더, 테슬라 등 다수의 다국적기업이 경영 방침에 혼란을 겪었음</li> <li>-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락다운 효과는 한동안 지속되어 중국 내 일부 해외 브랜드 기업들이 상반기 최대 35% 이상 손실 효과를 보았다고 하나, 럭셔리 제품에 대한 중국 소비자의 보복소비가 향후 수입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</li> <li>- GDP성장률 약세에 따라 경제 활성화의 척도로 활용되는 동재 가격은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 활성화 및 수출 호조로 이어질 수 있음</li> </ul> |
|    | <br>CNBC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중국의 수출은 6월에 예상보다 더 많이 급증했지만 수입은 예상보다 훨씬 적은 상승폭을 보였음</li> <li>- 중국의 2분기(4월-6월) GDP가 예측치인 1%에 비해 0.4% 증가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, 중국의 경기 침체는 글로벌 경제에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을 동시에 일으킬 가능성이 있음</li> </ul>  |

자료 : 각 기관 및 언론사 발표(22.7.14 현재)

### 3. 하반기 전망

■ 중국 및 해외 각 기관은 금년도 중국 GDP 성장률을 3.9%~4.9% 범위 내외일 것으로 예측하였으며, 상반기의 복합적인 경기침체 영향을 반영하여 금년 초에 예측했던 4.8%~5.5% 범위에서 하향 조정함

● IMF와 세계은행은 중국의 2022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4.4%, 4.3%로 전망

- 세계은행은 2022년 중국 GDP 예측치를 4.3%로 하향 조정하였고, 단기적으로 중국은 코로나19 방역 완화와 경제성장 동력촉진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이중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

#### 주요 기관별 2022년 중국 GDP 전망

| 구분 | 기관  | 전망치       | 비고  |
|----|---|-----------|---|
| 중국 | <br>中國銀行<br>BANK OF CHINA<br>중국은행<br>(中國銀行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.0%~4.7% | - 물가상승률은 합리적 범위 내이며, 고용상황도 안정되고 특히 서비스업 경기 회복국면이 이어져 하반기 경제회복 여지가 있음<br>- 하반기 내수시장 활성화가 거시경제 안정화의 관건임<br>- 6월 PMI는 50.2로 반등하여 제조업계는 경기확장 구간에 진입하였으며, 물류 운송 조건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  |
|    | <br>招商銀行<br>CHINA MERCHANTS BANK<br>자오상 은행<br>(招商銀行)                         | 4.2%      | - 불안정한 국제정세, 경제성장 동력 저하 등의 영향으로 금년 중국경제 성장세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<br>- 중국경제 전망 5.2%(22.2월)→ 4.2%(22.7월)로 하향 조정  |
|    | <br>植信投資研究院<br>ZHU XIN INVESTMENT RESEARCH INSTITUTE<br>즈신투자연구원<br>(植信投資研究院) | 4.6%~4.9% | - 연초 정부가 제시한 2022년 GDP 목표치인 5.5% 달성 난관에 직면해 있으며 추가적인 경기 활성화 정책이 필요함<br>- 경기 침체는 가계소비 위축에도 큰 영향을 미치며 개인 소비자는 장기 투자, 주택 소비 등의 지출에 더욱 신중해질 수 있음  |
| 해외 |  IMF   | 4.4%      | - 중국경제 전망 4.8%(22.1월)→ 4.4%(22.4월)로 하향 조정<br>- 세계경제 전망 4.4%(22.1월) → 3.6%(22.4월)로 하향 조정   |
|    | <br>THE WORLD BANK<br>세계은행   | 4.3%      | - 중국경제 전망 5.1%(22.1월) → 4.3%(22.6월)로 하향 조정<br>- 세계경제 전망 4.1%(22.1월) → 2.9%(22.6월)로 하향 조정<br>- 단기적으로 중국은 코로나19 방역 완화와 경제성장 동력 촉진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이중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음<br>- 향후 중국 내 코로나19가 통제되고 이동 제한 규제가 완화되면 연간 GDP성장률은 예상치를 상회할 수도 있음 |
|    | <br>OECD   | 4.4%      | - 중국경제 전망 5.1%(22.1월) → 4.4%(22.6월)로 하향 조정<br>- 세계경제 전망 4.5%(22.1월) → 3.0%(22.6월)로 하향 조정  |
|    | <br>NOMURA<br>野村證券<br>노무라 증권   | 3.9%      | - 세계 금융시장이 중국 경기둔화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음<br>- 중국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부분적 폐쇄 도시 증가, 물류 차질 등의 영향은 주요 거시경제지표 악화 및 경제 동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|

자료 : 각 기관 및 언론사 발표(22.7.14 현재)

- 중국은행은 비관적, 낙관적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금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4.0% ~ 4.7% 사이로 예측했으며, 하반기 내수 활성화가 경제성장 및 경기 안정화의 주요 관건이라고 언급
  - 3분기 GDP성장률 예측치는 4.6% ~ 6.0% 사이로 전망
- 즈신투자연구원(植信投资研究院)은 경기침체로 인해 연초 정부가 제시한 2022년 GDP 목표치인 5.5% 달성 난관에 직면해 있으며 추가적인 경기활성화정책이 필요하고, 하반기에도 가계소비 위축 국면이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
- 세계은행은 중국 경제성장 동력은 약하나 하반기 중국 인프라 투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며 이는 내수시장 실질 소비 약세를 일부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
  - 또한, 수입 식품 및 연료 가격 상승 영향으로 하반기 CPI 상승세가 예상되나 3%대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
- 금년 7월, 자오상 은행(招商银行)은 2022년 주요 경제지표 예측치를 발표하면서 금년도 경제성장률을 4.2%로 전망
  - 소매판매 증감률 예측치는 2.6%로 전년보다 낮게 전망한 반면, 고정자산투자 증감률 예측치는 5.5%로 전년 대비 높을 것으로 기대
  - CPI 예측치는 2.2%로 전년 대비 상승할 것이며, PPI 예측치는 5.5%로 전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추정
  - 수출증감률 및 수입증감률 예측치는 각각 6.3%, 2.8%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던 전년도와 달리 한 자릿수 증가세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

### 작년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및 금년 예측치

| (단위 : %)    | 경제성장률 | 소매판매 증감률 | 고정자산투자 증감률 | CPI | PPI | 수출증감률 | 수입증감률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-|
| 2021년       | 8.1   | 12.5     | 4.9        | 0.9 | 8.1 | 29.9  | 30.1  |
| 2022년 (예측치) | 4.2   | 2.6      | 5.5        | 2.2 | 5.5 | 6.3   | 2.8   |

자료 : 중국 국가통계국, 자오상은행(招商银行)

<참고>

중국의 주요 경제지표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| 2020년           | 2021년           | 2022년 1분기<br>(1~3월) | 2022년<br>6월 | 2022년 상반기<br>(1~6월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경제성장률<br>(%)               | 2.2             | 8.1             | 4.8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| 2.5                 |
| 소매판매 증감률<br>(%)            | △3.9            | 12.5            | 3.3                 | 3.1         | △0.7                |
| 고정자산투자 증감률<br>(%)          | 2.9             | 4.9             | 9.3                 | -           | 6.1                 |
| 산업생산 증감률<br>(%)            | 2.8             | 9.6             | 8.5                 | 3.9         | 3.4                 |
| 제조업 구매관리지수<br>PMI (% , 기말) | 51.9            | 50.3            | 49.5                | 50.2        | 50.2                |
| 소비자 물가지수<br>CPI (%)        | 2.5             | 0.9             | 1.1                 | 2.5         | 1.7                 |
| 생산자 물가지수<br>PPI (%)        | △1.8            | 8.1             | 8.7                 | 6.1         | 7.8                 |
| 실업률<br>(% , 기말)            | 5.2             | 5.1             | 5.5                 | 5.5         | 5.7                 |
| 외국인직접투자<br>(억 달러, %)       | 1,444<br>(4.5)  | 1,735<br>(20.2) | 745<br>(26.1)       | -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|
| 해외직접투자<br>(억 달러, %)        | 1,102<br>(△0.4) | 1,136<br>(3.2)  | 269<br>(8.5)        | -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|
| 외환보유액<br>(억 달러, 기말)        | 32,165          | 32,502          | 31,880              | 30,173      | 30,173              |
| 평균 환율<br>(위안/달러)           | 6.8974          | 6.4512          | 6.3505              | 6.6991      | 6.4810              |

출처 : 중국 국가통계국, 상무부, 인민은행